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문화 계통 연구

송 화 섭*

- I. 머리말
- II. 제주도의 해양과 문화 환경
 - 1. 제주도의 해양환경
 - 2. 제주도의 문화환경
- III.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유형과 분석
- IV. 인도의 나가신앙으로 본 제주도의 뱀신화·뱀신앙
 - 1. 인도신화에 나타난 Naga의 성격
 - 2. 제주도 뱀신화·뱀신앙의 근원과 인도의 힌두문화
- V. 맺음말

국문초록

제주도는 신화의 섬이다. 마을마다 다양한 당신화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뱀신화요, 뱀신화가 깃든 뱀신당이 분포한다.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주체는 바다뱀이다. 바다뱀은 바다를 배경으로 태동한 신화적인 뱀을 말한다. 제주도의 바다뱀은 젊은 처녀로 化身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처녀가 뱀으로 화신하고, 뱀이 처녀로 화신한다. 제주도의 뱀신은 선박의 배서낭으로 모셔지고 항해보호신으로 신앙되기도 하며 집안의 祖上神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제주도 해안 마을에서는 뱀신을 모시는 신당을 갖고 있으며, 뱀신이 처녀를 따라 다닌다는 俗信이 있다. 제주도에는 뱀이 석함에 실려서 해안에 도착한다는 석함표착신화가 존재한다. 제주도의 뱀신은 바다에서 올라온 渡來神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해양지리적 여건상 북태평양에서 해양문화를 받아들일 열린 공간이다.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은 동남아시아

* 중앙대학교 교수. histo55@hanmail.net

남해에서 올라왔으며, 제주도는 남해문화권에 속한다. 남해는 남인도의 남해에서 인도차이나반도, 중국의 남해안을 경유하여 제주도까지의 해역을 그 범위로 한다. 따라서 인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이 南海의 바닷길을 따라 제주도까지 북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바다뱀은 아난따(Ananta)와 바수키(Vasuki)이다. 아난따는 비슈누의 보조신으로 우주적인 뱀이며, 바수키도 천년우유바다를 지키는 바다뱀이다. 남해문화권에는 힌두신 비슈누와 아난따가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비슈누(Vishnu)와 아난따의 신화와 신앙이 깊숙하게 스며있다.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은 아난따가 도래하여 마을당신으로 정착한 것이다. 뱀이 많다고 뱀신으로 모셔지는 것은 아니다.

주제어: 제주도, 뱀신, 뱀신화, 뱀신앙, 남해, 아난따

I. 머리말

제주문화는 제주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제주도가 열린 세계냐 아니면 폐쇄적 세계냐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 大陸史觀의 관점에서 제주도는 가장 후미진 공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海洋史觀의 관점에서 제주도는 가장 먼저 열려있는 개방적 공간이다. 그동안 제주 당신화의 연구자들은 제주도를 닫힌, 폐쇄적인, 외딴섬으로 인식해온 면이 없지 않다. 제주도는 神의 섬이고, 神話의 섬이다. 제주의 신과 신화를 제주도라는 공간에 가둬놓고 지역 연구에 집착하다보니 마치 국수주의적 성향과 같은 濟州主義(JEJUISM)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선문대할망과 영등할망 등 신과 신화 연구에서 제주주의가 심화되면서 제주도를 닫힌 공간, 닫힌 세계, 닫힌 제주학으로 만들었다.

이 글에서 문제제기하려는 뱀신화와 뱀신앙 연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제주도 무속신화가운데 토산본향본풀이[兎山本郷神輦¹⁾]에서 제주도

1) 본풀이는 堂神話를 말한다. 제주도는 마을 단위로 다양한 마을신화가 등장하는데, 마을신화가 당신화요, 당신화의 내력이 본풀이다.

의 뱀신이 본토 나주 영산의 토주본향에서 날아왔다든지, 나주 금성산에서 날아왔다는 아끼바(秋葉 隆)식의 뱀신화, 뱀신앙 연구가 재생산되어 왔다²⁾. 제주 무속신화의 본향당, 본풀이라는 이름아래 스스로 뱀신앙을 뱀totem으로 인식하거나,³⁾ 제주도 속신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선사문화의 전승이거나⁴⁾ 原始信仰의 샤머니즘 형태라고 보는 시각이 주류였다⁵⁾. 그동안 제주도의 당신화는 천지창조, 創世神話라는 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왔고, 당신앙을 토템과 원시신앙이라는 제국주의적 민속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해왔다. 과연 이러한 상상력의 신화 연구가 제주 역사의 진실이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냐 하는 점이다. 이제 아끼바식의 제주학 연구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자칫 제주학이 전체적으로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다.

이제 제주도를 열린 세계와 해양사관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최근 동아시아중해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려는 경향⁶⁾이 있다. 동아시아중해적 시각에서 제주도는 북태평양 해양의 기류의 정점에 위치하고, 가장 앞선 해양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공간, 열린 세계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육지가 아니라 섬(island)이다. 제주문화의 본질은 모두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해양성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문대할망과 영등할망도 모두 남해의 바닷길을 타고 제주도에 올라왔다.⁷⁾ 그동안

2) 秋葉 隆, 「濟州島의 蛇鬼」, 『朝鮮民俗誌』, 명저출판, 1954.

3) 玄容駿, 「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堂神神話考(二)-」, 『國文學報』 2,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1964.

4) 김현선, 「사신숭배와 사신퇴치의 신화와 의례: 제주도의 사례를 구실삼아」, 『제주도 곳과 신화학술대회자료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한국무속학회, 2018.10.26.

5) 秦聖麒, 『南國의 神話』, 아림출판사, 濟州民俗文化叢書 제1권, 1965, 61쪽.
_____, 『濟州島巫俗論考-南國의 巫俗』, 濟州民俗研究所, 1993.

6) 윤명철은 2000년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2회 법화사지 학술대회에서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고대 동아시아중해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으며, 2002년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459-491쪽에 게재하였다. 권덕영은 「동아시아중해와 황해」,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서울, 2012.에서 동아시아중해론을 검토하였다.

7)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 『탐라문화』 제37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0.8.

제주의 뱀신화와 뱀신앙은 제주도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뱀의 정령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이라거나,⁸⁾ 제주도는 뱀이 많이 서식하기에 뱀신앙이 성행하였다거나, 고팡을 지켜주고 풍년과 부를 지켜주는 칠성신⁹⁾으로 신앙되고 있다. 그리고 여자가 시집갈 때에 뱀을 모시고 간다거나¹⁰⁾ 뱀신앙이 치마따라 모계계승으로 이뤄진다는 속신도 있다. 또한 여성 중심으로 무속이 성행하여 제주 여성들이 뱀을 섬기게 되었다¹¹⁾는 논리는 폐쇄적인 제주주의에 갇힌 뱀신화·뱀신앙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뱀신화에 등장하는 뱀은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뱀’이다. 제주도의 바다뱀은 실재 바다에 서식하지 않은 신화적 뱀이다. 제주도 당신화에 등장하는 뱀신화와 뱀신앙은 북태평양의 바닷길 따라 제주도에 올라왔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다. 제주에 뱀이 많다고 뱀신화가 태동하는게 아니다. 뱀은 징그럽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퇴치의 대상은 아니다. 제주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뱀을 신성시하고 조상신, 마을의 堂神으로 섬겨왔다. 신앙은 신화의 실천적 행위이고, 신화는 신앙의례의 신이한 서사적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의 뚜껑을 열어보자.

8) 문화콘텐츠닷컴-가신신앙: 제주도-뱀신 숭배와 씨족수호 신앙

9) 「한국일보」 2018년 2월 10일 기사, 제라진 제주이야기 “뱀을 신으로? 건강과 부를 지켜주는 제주칠성”

10) 「오마이뉴스」 2014년 5월 20일 기사, [제주, 미지의 섬④] 뱀이 된 그녀에 얽힌 이야기

11) 「제주의 소리」(<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63>)-<김정숙의 제주신화> 12 제주의 뱀신앙 여성의 위력과 고유한 존재성 강조

Ⅱ. 제주도의 해양과 문화 환경

1. 제주도의 해양환경

제주도의 해양환경은 북태평양 해류가운데 난류의 영향권에 있다. 북적도 해역에서 고온 다습한 적도기류가 시계 방향의 동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올라온다. 필리핀 남쪽 방향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난류와 필리핀 북쪽에서 발생하여 올라오는 쿠로시오 난류가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주도는 북적도 기류의 영향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남방큰돌고래가 올라오는 등 남쪽 바다의 해상기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봄, 여름에는 남서 계절풍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오키나와, 중국의 절강성 일대 해역에서 북상하는 선박들이 제주도와 한반도 서남해까지 순조롭게 항해해올 수 있다.¹²⁾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제주도까지 직접 항해할 수 있는 해양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반대로 가을부터 겨울을 거쳐서 초봄까지는 역으로 차갑고 건조한 북동 계절풍이 불어 제주도에서 중국 강남과 동남아시아 쪽으로 순조로운 항해가 가능하다. 순조로운 항해는 순풍에 돛단듯이라는 표현이 항해 여건을 말해준다.

그러나 바다에서 해상의 난기류는 종종 발생한다. 제주도 해상의 난기류는 제주민들의 표류 사실과 해안 표착 사실이 말해준다. 예를 들면 1488년 제주현감 최부는 추자도 근해에서 표류하여 중국 절강성 영파에 표착하였으며,¹³⁾ 1687년 조천읍 고상영도 추자도 근해에서 표류하여 안남국까지 표류하였고, 1720년 제주인 윤도성도 화탈도 근해에서 표류하여 대만에 표착하였으며, 1770년 애월읍 장한철이 오키나와에 표류하였다. 『탐라문견록』에는 제주도민 14명이 일본과 중국, 대만, 안남국(베트남) 등에 표류하였던 이야기가 있다.¹⁴⁾ 이와 반대로 제주도에

12) 윤명철,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증해』, 학연문화사, 2002, 480쪽.

13) 최 부, 『표해록』,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2004.

표류해온 사람들도 있다. 1653년 네델란드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하였고, 1627년 네델란드 벨테브레도 제주도에 표착해왔다.¹⁵⁾ 이러한 제주도민의 표류와 외국인들의 제주도 표착 사실은 제주도 주변 해역의 난기류의 해양환경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표류 및 표착 이야기는 동중국해와 황해남부의 사단항로, 남방해로 등에서 제주도 해상에서 난기류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처럼 제주도는 해양지리적 여건상 항상 바닷바람이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에 필리핀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의 진로권 중심에 제주도가 위치하고, 제주도에 영등곶의 전통이 강렬하게 전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영등곶은 바닷바람신을 위한 당굿이다. 제주도의 영등신은 바람신이다. 제주도에 부는 바람은 북적도 부근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바람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바람신을 잘 모셔야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제주도 영등신은 남쪽바다에서 영등대왕이 건너온다고 믿고 있으며, 영등 할망도 남쪽바다에서 올라온다. 영등곶의 주 무대도 제주도의 남쪽바닷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의 바다뱀신도 남쪽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 뱀신당의 중심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일대인데, 이곳은 제주도에 남서계절풍이 북상하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뱀신화와 뱀신앙은 고온다습한 남서계절풍을 따라 남해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은 동남아시아 남해문화권¹⁶⁾ 및 뱀신문화권¹⁷⁾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뱀신은 나주 금성산의 뱀신이 제주도에 건너왔다고 믿어왔다. 제주도의

14) 정운경, 『탐라문견록, 바다밖의 넓은세상』, 정민 옮김, 휴머니스트, 2008.

15) 진선희, 『제주 바닷 표류의 기억』, 민속원, 2017, 14쪽.

16) 남해문화권은 남인도의 남쪽 바다에서 인도차이나반도의 해안을 경유하고, 중국 남해안을 통해서 주산군도 보타낙가산까지 이르고, 다시 북상하여 제주도까지 남해문화권의 바닷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남해문화권의 설정이 본토 남해안까지 올라왔는지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17) 제주도의 뱀신은 아끼바(秋葉 隆)가 설정한 저주와 퇴치의 蛇鬼文化圈이 아닌 송배와 신앙의 蛇神文化圈으로 보아야 한다.

뱀신화와 뱀신앙이 나주 금성산의 뱀신을 모셔왔다는 대륙사관적 시각은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제주도가 남해문화의 영향을 받는 섬이라는 자연환경과 해양지리적 여건에서 뱀신화와 뱀신앙을 접근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응방식이 의례를 낳고, 지혜가 생겨나고 문화를 축적시킨다. 제주도의 다양한 무속의례도 제주도 사람들이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태동한 것이다. 해양지리적 여건상 제주도는 북로와 남로를 안고 있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라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섬이지만 남쪽바다에 열린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섬이라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동아시아에서 해양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중심에 위치한다. 제주도민들이 해양환경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영등곶을 지내고 마을 본향당에 뱀신을 모시고 본풀이를 거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2. 제주도의 문화환경

제주도의 문화환경은 해양지리적 여건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제주도에선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 고인돌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제주도에 동남아시아 고인돌문화가 전파해왔음을 보여준다.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하는 위석식고인돌은 제주도식 고인돌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유형의 고인돌은 인도네시아 슌바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¹⁸⁾ 윤명철은 제주도의 고인돌이 일본 오키나와 최남단에 위치하는 미야꼬섬(宮古島)의 고인돌과 흡사하다고 했다.¹⁹⁾ 미야꼬섬의 고인돌은 고인돌을 가운데에 두고 방형의 돌담을 둘러쌌다. 이러한 전통은 제주도에선 무덤을 화산석으로 둘러놓은 산담이 닮은꼴이다. 제주도의 산담은

18) 송화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고인돌」, 『인문콘텐츠』 4호, 인문콘텐츠학회, 2004.

우장문, 「인도네시아 슌바섬의 고인돌」, 『백산학보』 87호, 백산학회, 2010.

19) 윤명철,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고대 동아시아중해를 중심으로-」,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462쪽.

봉분을 가운데 두고 방형 돌담을 두르는 형식인데, 오키나와 고인돌의 돌담 구도와 같고, 더 멀리 인도네시아 순다열도의 돌담 구도와도 같다.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고인돌은 인도네시아 슴바섬과 수마트라섬의 고인돌 계통이라 할 수 있다.²⁰⁾

오키나와는 바닷길로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어찌 보면 제주도와 일본 규슈지역은 위도가 같으며, 오키나와는 동일한 쿠로시오 해류권에 속해있다. 제주도민이 표류하면 제일 많이 표착하는 곳이 오키나와이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동일한 해양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출신 장한철은 오키나와 남쪽 호산도까지 표류한 사실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에 照里之戲(줄다리기)가 8월 15일에 연행된다고 했다.²¹⁾ 제주목의 중추절 줄다리기는 본토의 정월보름 줄다리기 풍속과 다르다. 오히려 일본 오키나와 일대의 8월 중추절 줄다리기와 동일한 계통성을 보여준다. 오키나와에서 뱀줄로 뱀줄을 만들고, 그 뱀줄을 잘라서 강이나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바다뱀신앙과 유사성을 보여 준다.²²⁾

제주문화의 상징가운데 정낭이 있다. 이 정낭은 민가의 열림형 대문 구조이다. 정낭은 3개의 긴 장대를 수평으로 문설주에 끼워 넣기에 따라 집주인의 외출 유무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체계이다. 이러한 정낭은 인도,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네시아에 확산되어 있는 대문의 구조이다. 이러한 정낭은 남인도의 드라비다족들이 사용하는 대문의 신호체계와 기본적으로 같다. 문제는 정낭이 제주도에만 설치되어있고 한반도 본토에서는 왜 보이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가 동남아시아 도서문화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탐라

20) 김병모, 「한국 거석문화의 원류에 관한 연구(1)」, 『한국고고학보』 10·11, 한국고고학연구회, 1981.

21)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제주목 풍속 조리지.

“每歲八月十五日男女共聚歌舞分作左右隊曳大索兩端以決勝負索若中絕兩隊仆地則觀者大笑以爲照里之戲 是日又作鞦韆及捕鷄之戲”.

22) 호시노 히로시, 「일본의 줄다리기 전승 현황」,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와 다양성과 통유성』,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74-77쪽.



〈그림 1〉 남인도의 궁궐건축 출입구에 세워진 정낭

국 시기에 제주인들이 직접 인도-태평양권과 교류하면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정낭은 남해문화권에서 바닷길 따라 제주도에 올라와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정낭은 제주도가 남쪽바다를 향하여 열려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김병모는 제주도의 하루방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베사키 힌두사원에서 본 석인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다.²³⁾ 제주도의 하루방은 본토의 장승과 흡사하지만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은 장승과 다르다. 이처럼 두 손 모은 석인상은 남방 계통으로 이스타섬의 석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고 권삼윤은 남미의 페루에서 제주도 하루방과 동일한 석인상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²⁴⁾ 필자도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답사하던 도중 돌하르방과 흡사한 석인상을 본적이 있다. 돌하르방이 본토의 장승 영향을 받았을 지라도,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은 인도네시아 석인상과 매우 흡사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주도의 고인돌, 줄다리기, 정낭, 돌하르방을 사례로 들었다. 모두가 문화적 계통성을 말한다면 모두가 바닷길따라 동남

23)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여행』, 고래실, 2006, 55쪽.

24) 「신동아」 2013년 9월 24일 기사, 기원전 1만년 누가 바다를 정복했을까: 돌하르방과 모아이가 닮은 까닭은?

아시아 남쪽 바다에서 건너온 남방문화라 할 수 있다. 그 제주문화의 근원지는 인도-인도네시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말라카해협을 통과한 남방문화가 동아시아 바닷길따라 제주도에 직접 올라올 수 있으며, 남서계절풍을 만나면 순조롭게 제주도에 다다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문화적 근원은 동남아시아 계통과 연계되어 있으며, 제주도에서 남방계 해양성 문화는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三姓穴 신화, 즉 제주의 토성인 高·良(梁)·夫 삼성의 시조들의 해안표착형 설화가 말해준다. 제주도 고·량·부 삼성 시조신화는 다음과 같다.

『高麗史』古記에 이르기를, “처음에는 인물이 없었는데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지금 진산 북쪽 기슭에 毛興이라는 구멍이 있으니, 이곳이 3神이 나온 땅이다. 맑은 양을나이고 다음은 고을나이가 세 번째는 부을나이인데 세사람이 궁벽한 황무지에 돌아다니며 사냥하며 돌아다니며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보니 붉은 진흙으로 봉한 함이 동해가에 떠 이르렀다. 가까이 가서 열어보니 안에 石函이 있고 붉은 띠에 자주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왔다. 석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사람과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종자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使者가 말하기를 ‘나는 日本國 사신인데, 우리 왕이 이 세딸을 낳고 기르기를 서해가운데 있는 산에 神의 아들 세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는데, 배필이 없다 하고, 이에 臣에 명하여 세딸을 모시고 왔으니 배필을 삼아 근업을 이루소서’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타고 가버렸다. 세사람이 연치의 차례로 나누어 장가들고 샘물 맛이 좋고 땅이 비옥한 곳에 나가서 화살을 쏘아 땅을 정하고 양을나가 사는 곳을 第一都라 하고 고을나의 사는 곳을 第二都라 하고, 부을나가 사는 곳을 第三都라 하여 비로소 오곡을 파종하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기르니 날마다 부흥하고 번성해졌다.

15세손 고후 고충 형제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에 닿았으니 대개 신라의 융성한 시대였다. 이때에 객성이 남방에 보였는데, 태사가 아뢰기를, ‘다른나라 사람이 와서 조회할 징조라 하였다. 후의 무리가 이르매 왕이 가상히 여기어 후에게 성주라는 칭호를 주었으니 客星象이 동하였기 때문이다. 왕은 칭을 자기의 가랑이 아래로 나가게 하고,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같이 하여 왕자라고 일컬고

그 망내를 都內라 일컬었다. 고을 이름을 耽羅라 하였으니 처음에 와서 耽津에 닿아서 신라에 조회하였기 때문이다. 각각 보개와 옷을 주어 보냈다. 이 때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신라를 공경히 섬기매 드디어 高를 성주로 삼고 良을 왕자로 삼고 夫를 都上으로 삼았다. 뒤에 良을 고쳐서 梁으로 하였다.²⁵⁾

위의 제주도 삼성 시조신화는 시조들이 땅에서 솟아나왔고, 바다에서 표류해온 石函에서 나온 세 처녀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있다. 진흙으로 봉한 함에서 나온 세 처녀는 뱀의 화신일 수 있다. 제주도 전설에는 뱀을 함에 넣어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전해오고 있다. 제주 동해가 해안에 표착한 함과 함께 온 사자는 자신이 일본국 사신임을 밝히고 있다. 이 함은 일본 벽랑국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절강성 월주에서 바닷길따라 도래해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제주도 삼성시조 신화의 석함 도래 이야기는 신라의 석탈해신화와 기본적으로 같은 櫃生神話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석함과 궤는 기본적으로 신라 김알지의 시조탄생의 모티브를 갖고 있으며, 석탈해가 궤에 실려 바다에서 해안에 표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같다. 현용준은 신이 석함에 담겨 표착하는 箱舟漂着神話는 중국 강남해안,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계통이라 하였다.²⁶⁾ 상주는 석함과 동일한 도래신의 상징이고, 석함에 뱀이 들어 있었다면, 제주도의 뱀신화, 뱀신앙은 동남아시아 계통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Ⅲ.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유형과 분석

다음은 제주도에서 전해오는 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문헌과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당신화와 당신앙에 대한 사례 연구의

25)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건치연혁조.

26) 玄容駿·玄承桓,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5, 21쪽.

자료들이다. 토산리 뱀신당의 당신화, 차귀당 당신화, 금녕뱀굴, 석함표 착신화, 나주 기민당 조상신화 5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토산리 뱀신당의 당신화

羅州牧使가 羅州 榮山 토주본향신 大龍을 베어죽이니 龍神은 옥바둑돌로 변신하였다. 제주읍 兎山리에 사는 吏房·刑房이 서울로 往來하는 도중에 이 바둑돌로 변신한 신의 도움을 받고, 神의 노여움을 샀다. 이 신은 제주도의 동남해안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女神으로 變身하여 토착의 여신과 교섭하고 토산리로 가던 도중 山神의 습격을 받고 龍堂리에 좌정했다. 그러나 누구하나 참배하는 자가 없으므로 화가 나서 큰 배를 전복시키고 漂着한 漁夫로 하여금 좌수의 딸을 강간하여 죽게 하였다. 또 刑房·吏房의 딸도 神의 노여움으로 병에 걸리게 되자 심방을 불러 굿을 한 결과 병이 나아 孝女 節婦가 되었다. 그리하여 錦城山神은 兎山堂의 알당(下堂) 堂神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⁷⁾

(나) 차귀당 당신화

봄 가을에 남녀가 광양당(廣壤堂), 차귀당(遮歸堂)에 무리지어 모여서 술과 고기를 갖추어 神에게 제사를 바친다. 또 그 땅에 뱀·독사·지네가 많은데, 만일 회색뱀을 보면 차귀(遮歸)의 신이라 하여 죽이지 말라고 금한다.²⁸⁾

(다) 김녕뱀굴(金寧蛇窟)

구좌면 김녕리에서 북쪽으로 약 1킬로쯤 가면 뱀굴이라는 커다란 동굴이 있다. 길이가 약 200여간 높이 5간, 넓이가 대략 6간이 된다는 굴이다. 옛날 이 굴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는데, 크기가 굴의 반이나 되며, 큰 귀를 가지고 있었다 한다. 이 뱀은 갖은 요망스러운 짓으로 마을사람들을 괴롭혔으므로 마을에서는 해마다 술과 떡을 차려 제사를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15세되는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년 내내 풍우의 재앙이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근조 11대 중종 10년(1515)에 서 린이라는 분이 판관으로 부임하여 그 내력을 듣게 되었다. 그는 나이는 비록 어린 편이었으나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듣고 뱀을 처치하기로 마음을 정하였

27) 文武秉,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141쪽.

28)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풍속조.

다. 그는 군교 수십명에게 창검과 염초와 신탄 등을 소지하게 하고 뱀 굴로 갔다. 여느 때처럼 제사를 지냈다. 과연 커다란 뱀이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뱀이 처녀를 삼키려는 순간 서린은 창으로 뱀의 허리를 찔렀다. 그 뒤를 따라 군교들도 일제히 뱀에게 달려들었다. 뱀은 이내 죽어버렸다. 그들은 죽은 뱀을 불태우고 관아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도중에 뒤에서 노인인 듯한 목소리가 부르기에 서린이 뒤돌아본 즉 금방 처치한 뱀이 구름을 타고 쫓아오고 있는게 아닌가

서린은 관아에 돌아온 후로 의식불명으로 신음하다가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린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나, 하여간 그 후부터 뱀의 요괴가 근절되었다고 한다.²⁹⁾

(라) 석함표착신화

황토고을 황정승 대감이 4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어 탄식하다가 동개남 은중절에 수륙을 들어 딸을 낳았다. 딸이 7살때에 황정승이 정승 살러 떠났는데 딸이 아버지의 가마채를 따라가다가 들판에 떨어져서 울다지쳐 구렁이 몸으로 환생하였다. 딸 잃은 소식을 들은 황정승이 급히 돌아오는데, 그 들판에 오니 큰 구렁이가 가마채에 몸을 감았다. 황정승이 야단치니 구렁이가 떨어지므로 집에 오고 보니 딸방에 큰 구렁이가 누워 있었다. 황정승은 石函을 짜서 구렁이를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리니, 석함은 떠 돌아다니다가 북촌리에 표착하였다.

북촌리 김침지 영감이 고기를 낚으러 가다가 석함을 발견하고 열어 보니 큰 구렁이가 나오므로 놀라서 버렸는데 딸 셋이 일시에 아팠다. 문점을 하니 그 구렁이를 위하여야 하겠다. 하므로 잘 차려서 대접했더니 딸들의 병이 일시에 낳았다. 김침지 영감은 그 뱀을 조상으로 위하여 집 뒤 굴나무 밑에 모셨다.

이 조상뱀은 다시 미녀로 변신하여 문점을 하니 월정리 당신 신산국이 배필감이라 하므로 곱게 차려 있고 신산국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월정리에서 신산국을 만났다. 부부가 되어 아기 일곱을 낳았다. 하루는 잔치 구경하고 오다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의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이 걸리므로 이것을 불에 태워 먹고 집에 왔더니 신산국이 더럽다고 하여 서당머채로 별거하라 하였다. 부인이 먹어 살 길을 마련해달라고 하니 단골들에게 흥함을 주어 얻어먹어라 하므로 단골들에게 두통, 구토, 복통을 주어 6월 8일, 18일, 28일, 10월 8일, 28일을 제일로 하여 돼지고기를 받아먹고 1월 4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남편 신산국과

29) 秦聖麒 『南國의 傳説』, 일지사, 1968, 150-151쪽.

같이 大祭日의 제의를 받는다³⁰⁾.

(마) 나주 기민창 조상신화

조천의 안씨선주가 부자로 살아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 제주 백성이 굶어죽게 될 때 안씨선주의 재산이이면 제주 백성을 사흘은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목사가 들었다. 목사(牧使)가 안씨선주를 불러 구휼할 것을 요청했다. 안씨선주는 돈창고의 돈을 배에 가득 싣고 송씨선주, 박씨선주와 같이 곡식을 사러 나갔다.

팔도강산을 다 돌다가 나주 기민창의 곡식이 돈에 맞은 것을 알고 모두 사서 배에 싣었다. 배가 출발하려는데 어떤 예쁜 처녀가 배에 오르는 것이 보여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배를 띄웠다. 도중 돌풍이 일어 배밑이 터져 곡식이 물에 잠기게 되자 하늘에 빌었다. 침몰하던 배가 물위에 둥둥 떠 배 밑을 살펴보니 큰뱀이 뿔과리를 틀고 배밑 구멍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 뱀이 조상인 줄 알았다. 조천 포구에 배가 무사히 닿자, 향불을 피우고 뱀에게 내려서 집으로 가시도록 하였다. 뱀은 내려오지 않았다가 밤중 안씨선주 꿈에 나타나 자신은 기민창의 곡식을 지키던 조상인데 곡식을 따라 왔음을 밝히고 안씨선주가 상단골, 송씨선주가 중단골, 박씨선주가 하단골이 되어 삼명일, 기일제사 때와 매년 철갈이로 또 큰 곳을 하여 위하면 부자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골들의 울타리 안에는 몸을 감출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새콧알로 간다고 했다.³¹⁾

(가)나(다)태(마)는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 토산리 당신은 뱀신이 아니라 용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토산당의 당신은 뱀신인데, 마을당신으로 大龍이 출현하고 있다. 용과 뱀을 동일시하는 龍蛇信仰은 동남아시아의 전승성이다.

둘, 토산리 堂神은 바다에서 올라온 해신으로서 龍堂里에 좌정하였다. 해안에 도착한 龍神은 토착신과 교섭하는데, 산신의 습격을 받고 용당리에 좌정하고 있다. 산신은 토착신이라면 해신은 도래신이라 할

30) 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1995, 24쪽에서 재인용.

31) 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1995, 5쪽에서 재인용.

수 있다. 토산리의 당신은 마을수호신이요, 뱀신인데 용신으로 인식하였거나 용과 뱀이 미분화된 용사신앙의 전형을 보여준다.

셋, 토산리의 용신은 변신의 능력을 가졌다. 변신의 능력은 化身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용신은 화신의 능력이 없다. 하지만 Naga 계통의 뱀신들은 화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토산리의 뱀신은 처음에는 바둑돌로 화신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여신으로 화신하고 있다. 아름다운 여신이란 미모의 처녀신을 말한다.

넷, 토산리의 당신은 도래신으로 마을주민들이 섬기지 않고 외면하자 심술을 부리고 있다. 뱀신이 화가 나서 배를 침몰시키고 좌수의 딸을 강간하여 죽게 만들고, 노여움으로 지방관리의 딸들도 병들게 하고 있다. 좌수의 딸을 강간한 것은 토산리의 뱀신이 남성이미지를 가졌으며,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해신의 심술이다.

다섯, 토산리 당신은 뱀신의 성격이 강하다. (가)에서 당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쉽게 토라지고 빠지고 해꼬지하는 모습은 뱀신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용신이 토라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미물인 뱀신이 토라지는 사례는 종종 있다.³²⁾

(나)의 내용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풍속조에 실린 내용이다. 차귀당의 당신이 뱀신인데, 이 뱀신 신앙은 제주도에 뱀·독사·지네가 많다는게 직접적 요인이라는 인식이다. 제주도는 고온다습한 남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뱀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남서계절풍은 제주도에만 불어오는게 아니라 열대지방의 고온다습한 기후는 한반도 본토까지 영향이 미친다. 우기에는 전국 어디에나 뱀이 많다. 회색뱀은 遮歸의 산이라 죽이지 않는다. 차귀는 蛇鬼의 잘못된 표기로서, 차귀의 신은 뱀신을 가리킨다.³³⁾ (나)와 거의 같은 시기의 『제주풍토록』에

32)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양리 당신, 즉 마을수호신은 구렁이라는 뱀신이다. 마을주민들이 당신을 잘 위하지 않을시에는 빠지고 다른 마을로 옮겨간다. 그런 연후에 마을주민들에게 선몽한다. 마을 주민들은 뛰쳐나간 뱀을 다른 마을에 가서 모셔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양리 사람들은 정월보름 줄다리기를 멈추지 못하고 매년 거행해오고 있다(정양리동제자료집 참고).

33) 이영권,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245쪽.

“뱀을 두려워하여 신으로 받들면서 뱀을 보면 주문을 외고 술을 뿌리며 감히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는다”는 내용에서 제주도민의 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³⁴⁾ 뱀이 무섭고 두렵지만 당신으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㉔)의 김녕사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 (㉔)의 내용은 제주도 사람들의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뱀은 지역주민들에게 요망스러운 짓을 하는妖怪로서 퇴치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다. 제주 주민들은 뱀을 공포의 대상으로 15세 처녀를 희생제물로 바칠 정도로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관관 서린이 창으로 뱀을 찔러 죽였으나, 뱀은 죽지 않고 구름타고 뒤쫓아오는 不死의 신으로 영물이다. 제주도의 뱀은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교훈을 보여준다.

둘, 뱀신 퇴치의 주제가 제주의 판관이며, 시대적 배경이 1515년(중종 10)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설에서는 대체로 전설의 생성 시기가 명시되지 않는다. 김녕사굴의 뱀을 퇴치하는 사건이 1515년경이란 사실은 조선시대 전기 유교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불교와 민간신앙을 배척하고 억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듯하다.³⁵⁾

(㉔)의 석함표착설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 황정승의 딸은 뱀(구렁이)으로 화신하고 있다. 딸이 뱀으로 화신하여 방안에 누워있는 것을 본 황정승이 석함에 넣어 바다에 띄웠다. 이 황정승의 딸이 뱀으로 화신하고 그 뱀을 석함에 넣어 바다에 띄운 것은 바다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둘, 북촌리 대감이 고기잡으러 바닷가에 갔다가 해안에 표착한 석함을 열어보니, 큰 구렁이가 나오므로 즉시 버렸더니 딸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문점을 해보고 구렁이를 조상신으로 섬겨 모셨더니 딸의 병이 낫었다. 김침지는 집의 뒤뜰에 조상신³⁶⁾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이다.

34) 진성기, 『제주도무속연구』, 민속원, 2003.

35) 「제민일보」(webmaster@jemin.com, 2000년 12월 31일 고대경 기자의 ‘김녕마을 뱀신앙’기사 참조.

셋, (㉔)의 뱀신은 화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황정승의 딸이 구렁이로 화신하고 다시 미모의 처녀로 화신하여 월정리 당신 신산국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다. 제주도에서 뱀신은 조상신이요, 당신이요, 처녀신으로 신앙되고 있는데, 모두가 여신이라는 특징이 있다.

넷, 신산국 부인(서당할마님)은 하루는 잔치마당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돼지밭자국의 물을 빨아 먹고서 목에 돼지털이 걸리자 돼지털을 태워 통째로 돼지를 잡아먹고 집에 돌아오니 신산국이 부정탄 것이라 하여 별거를 요청하고 있다. 월정리의 당신 신산국은 멧돼지의 화신일 수 있다. 신산국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堂神이다. 힌두신의 비슈누는 멧돼지로 화신하는 능력을 가졌다. 제주도 당신화에서 서당할마니가 조화를 부리면 돼지를 잡아서 제를 올린다는 전설이 있다. 이 전설로 당제 때에 돼지를 잡아 제를 지내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³⁷⁾ 우리나라 무속의례에서 통돼지를 제물로 사용하거나 돼지머리를 제사상에 올리는데, 이러한 관행은 동남아시아 당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 선주 안씨의 배서낭으로 처녀신을 모신 이야기이다. 나주 기민창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배를 포구에 대고 곡식을 싣고 출항하려던 차에 예쁜 처녀가 배에 승선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예쁜 처녀가 뱀신이요, 서낭신이다. 일반적으로 어선과 선박에는 배서낭을 모시는데, 이 배서낭은 처녀신이 보편적이고 처녀신이 뱀신이다.

둘, 항해도중 돌풍으로 배 밑에 구멍이 나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었는 데, 확인해보니 뱀이 꼬아리를 튼 몸체로 구멍을 막아 배의 침몰을

36) 제주도민들은 뱀신을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모시는데, 안칠성은 고팡의 신이요, 밧칠성은 뒤뜰의 신으로 모신다. 집안 뒤뜰의 조상신으로 모신 것은 밧칠성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37) 여연·문무병의 『신화와 함께하는 제주 당올레』, 알렙, 경기, 2017, 250-255쪽. 월정본향당 본풀이에서 서당할머니가 조화를 부려서 돼지를 잡아 당제를 올리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통돼지 제물은 남방계의 힌두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출하고 있다. (배는 배서낭이 처녀신이며, 뱀서낭³⁸⁾으로 배를 지켜내고 있다.

셋, 조천의 안씨 선주는 뱀신을 조상신으로 섬기려 하였으나, 뱀신이 꿈에 나타나 자신은 나주 기민창을 지키는 조상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주 기민창은 영산강변의 제민창(濟民倉)을 가리킨다. 기민창의 조상신은 곡물을 관리하는 재운신의 성격이 강하다. 제주도 사람들이 뱀신을 집안의 재운을 관장하는 안찰성으로 모시는 것도 (배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림 2〉 남인도 나가르주나 고행상
 나가가족(위: 나가 naga, 아래: 나기니 nagini)
 사진제공:김성훈 미술사박사

(가)(나)(다)(라)(마)에 나타난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뱀신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뱀이다. 바다의 해신으로 용이 등장하는게 일반적인데, 제주도에서는 뱀이 海神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바다뱀은 실존하는 뱀이 아니라 당신화에 등장하는 신화적 대상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뱀신앙은 신화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한다. 석함표착신화에서 석함에 큰 구렁이가 들어 있었다. 석함표착은 제주도의 뱀신이 도래신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배)의 북촌리 김침지 영

38) 정연학, 「한국의 해신과 배서낭」, 『한일해양민속지-한일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 바다』, 국립민속박물관, 2018, 369쪽.

감이 징그러워서 구렁이를 버렸던 딸 세 명이 병에 걸렸고 문점을 한 후에 구렁이를 모심으로 병이 낫게 되었다. (태)는 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이중성이다. 징그럽고 요망스러운 요괴이지만 조상신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영물이다. 뱀이 해신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가까운 일본 큐슈와 오키나와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해신숭배는 龍蛇信仰의 전통이 있다. 용사신앙은 용과 뱀을 동일시하는 경향인데, 이러한 용사신앙은 인도네시아까지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힌두신앙의 영향이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남해의 용사 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의 大龍은 바다뱀神이나 다름없다. 토산리는 제주도에서 뱀신앙권의 중심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토산리 으드렛당에서 ‘가지 갈라다 모산’ 당들이 많다는 것인데,³⁹⁾ 토산리는 제주도 뱀신앙의 본향임을 말해준다. 토산리 처녀들이 결혼을 하면 뱀신이 따라 간다고 한다. 그래서 토산리 처녀들이 시집가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둘째, 뱀이 집안의 祖上神으로 등장한다. (라)에서는 뱀을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시고, (마)에서는 뱀은 조상신으로 믿으며 신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씨 선주는 집에 향불을 피우고 조상신으로 모시려는 자세를 취하지만 뱀신은 자신은 기민창의 곡식을 지키는 조상신이라고 사양을 한다. 뱀을 조상신으로 섬기는 뱀신앙이 제주도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주도의 민간신앙에서 뱀신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관행이 없다면, 뱀을 조상신으로 섬기는 문화적 계통을 추적해보아야 한다.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을 바닷길따라 밖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너무나 다양한 뱀문화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뱀을 신격화하여 사원에 모시기도 하고, 인도 북부 나가족(Naga族)들에게서 나가를 조상신으로 섬기는 토렘미즘(totemism)이 발견된다. 이집트 신화에서 뱀은 신격화되어 있으며, 중국 신화에서 최초의 신은 뱀이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뱀은 창조신으로 등장하고 있다.⁴⁰⁾

39) 문무병, 앞의 논문, 1993, 151쪽.

40) Ariel Golan,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정석배 역, 푸른역사, 2004,



〈그림 3〉 인도의 반인반사(半人半蛇)의 나가, 나기니의 나가갈상

셋째, 제주도의 뱀신화에서 처녀가 뱀으로 화신하고 뱀이 처녀로 화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가)에서는 바다의 뱀(용)이 제주도의 동남해안에 당도하여 여신으로 화신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예쁜 처녀가 뱀(구렁이)으로 화신하고 있다. (다)의 뱀신은 석함에 실려온 뱀인데, 김침지 영감에게 버림을 받아 딸을 병들게 하였으며, 문점을 치고 다시 조상신으로 모시자 병을 낫게 하고 있다. (마)의 뱀신은 항해의 수호신으로 배의 밑에 구

멍이 나 침몰 위기에 처했으나 뱀이 바닥의 구멍을 몸으로 막고 있다. (라)에서는 딸이 구렁이로 화신하고, 다시 구렁이가 처녀로 화신하는 뛰어난 화신술을 보여준다. 해신이 여신으로 화신하고, 처녀가 뱀으로 화신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힌두신앙의 특징이기도 하다.⁴¹⁾

인도의 뱀신으로 나가(naga)와 나기니(nagini)가 있다. 나가는 남신의 성격을 가졌다면, 나기니는 뱀의 여신이다. 인도에서의 뱀의 돌에는 나가와 나기니가 엉켜있는 모습의 조각들이 많다. 이러한 조각을 Nagakal 이라고 하는데,⁴²⁾ 반인반사의 형상이 많다. 半人半蛇는 상체는 사람이요, 하체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가)라)에서 젊은 여자가 뱀으로 변

337쪽.

41) 이은구, 『인도의 신화』, 세창미디어, 2003, 137쪽.

42) 안넬리제+페티카일하우어, 『힌두교의 그림언어』, 동문선, 1983.

신하고, 뱀신을 섬기지 않으면 해꼬지하거나 심술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에서 뱀신(naga)은 배를 전복시키고 딸을 강간하여 죽게 만든다. 좌수의 딸을 강간하는 모습은 뱀신이 남신임을 보여준다. 뱀신은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심술부리고 해꼬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술부리는 모습은 매우 인간적이기도 하다.⁴³⁾

넷째, (라)에서 처녀는 뱀으로 화신하여 몸으로 배 밑구멍을 막아 배의 침몰을 막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뱀신이 배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들은 배서낭을 모신다. 대체로 배서낭은 처녀, 여신을 모시는 관행이다. 처녀 배서낭은 바다뱀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선주들이 배의 서낭신으로 젊은처녀를 모시는 경향이 강하다.⁴⁴⁾ (가)(다)(라)(마)에 나타나는 뱀신은 바다뱀신인데, 남신과 여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뱀신은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배를 전복시키거나, 강간하여 죽이거나, 병들게하여 심술부리며 해꼬지를 하는데, 젊은 처녀뱀신은 헌신적이고 배의 수호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주도의 뱀신은 인도의 뱀신처럼 남자뱀신(naga)과 여자뱀신(nagini)이 등장하고 있다. 제주도의 바다뱀신은 인도의 뱀신에서 그 원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제주도의 뱀신은 해안에 표착하는 석함에서 출현하고 있다. 석함표착신화는 제주도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중국 강남 해안, 대만,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분포하는 箱舟漂着神話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⁴⁵⁾. 이와같은 제주도의 석함표착신화는 舩이라는 선박에 실려온 櫃에서 단정한 남아가 실려 있는 석탈해신화와 같다. 석함의 函이나 櫃는 기본적으로 같다. 단지 배에 실린 귀

43) 이은구, 앞의 책, 2003, 137쪽.

44)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편(2011)에서 배서낭을 기술해 놓았다. 배서낭은 남서낭보다 여서낭인 경우가 많고, 여서낭은 처녀서낭, 각시서낭, 할머니서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배서낭에게 받치는 빛과 연지를 공물로 바치는데 깨끗한 처녀의 것을 최고로 여긴다고 한다(정연학, 앞의 글, 2018, 368쪽).

45) 玄容駿,玄承桓,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5.

안의 남자와 함 안의 구렁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해안표착형 신화적 존재로는 동일하다. 또한 둘다 신화적 해석으로는 바다에서 도래해온 해신이다.

제주도의 삼성혈 신화에서 삼성의 시조의 배필들은 石函으로 실려온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석탈해신화도 상주표착신화에 속한다. 昔脫解는 자신이 龍城國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느 곳에 있는 나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석탈해가 타고온 艇이 중국 뭇나라의 배라는 점에서 중국 절강성 영파, 월주지역에 용성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 석함은 월주 지역에서 동중국해 시단항로를 따라 제주도에 표류해왔을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의 석함표착설화는 서남해안의 石舟표착설화와 유사하다.⁴⁶⁾ 제주도의 석함표착신화는 동남아시아 남해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제주도에 직접 올라왔거나, 월주지역(주산군도 일대)을 경유하여 제주도에 올라와 표착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남해는 남인도의 남쪽바다를 가리키기 때문에 인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이 배의 석함에 실려 제주도까지 도래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시아에서 뱀신화와 뱀신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인도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가)에서 제주도 뱀신화의 시대적 배경이 고려시대이다. 왜 제주도 뱀신화에 나주 목사와 나주의 금성산신과 나주의 기민창이 등장하고 있는냐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은 고려시대를 넘어설 수 없다. (가)에서 나주의 금성산신이 토산리 알당의 당신(뱀신)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에서는 나주 기민창이 등장하고 있다. (가)에서 나주 영산 토주분향신이 뱀신이었는지는 알길이 없다. 제주사람들이 나주 기민창으로 구휼미를 사러 간 사실은 제주와 나주 사이에 빈번한 해상교통을 말해준다. 나주와 제주 사이에 항해하는 선박의 배서낭으로 처녀신이 신앙되고 처녀신이 뱀서낭으로 화신하였다. 처녀서낭과 뱀서낭은 동일한 신격이라 할 수 있다.

(가)에서 처녀가 승선하였는데 항해도중 돌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상

46) 송화섭, 「한반도 서남해안 석주설화의 역사적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황에서 처녀는 뱀으로 화신하여 배 바닥의 물구멍을 몸체로 틀어박고 있었다. 나주 금성산의 금성산신이 토산리 토산당 알당의 당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나주 금성산신이 그만큼 영험하기 때문이다. 『高麗史』 권 105 열전 정가신전에 “금성산신이 무당에게 강신하여 ”진도와 탐라를 칠때에 내가 실로 힘을 썼는데, 장수들은 상을 주면서 내게는 녹을 주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반드시 나를 정령공에 봉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진도와 탐라를 칠때라는 내용은 고려시대 삼별초의 난을 진압할 때에 나주 금성산신의 영험이 컸다는 이야기이다.

鄭阿臣(1224~1298)의 간청으로 국가에서 금성산신은 定寧公에 봉해졌고, 1277년(충렬왕 3)에 나주목사는 금성산신에게 녹미 5석을 신당에 보내주었다고 한다. 제주도의 뱀신이 나주에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제주와 나주를 오가는 제주 선박의 배서낭으로 처녀신이 모셔졌는데, 처녀신이 뱀신으로 화신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러몽연합군이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삼별초 세력들이 진도에서 근거지를 제주까지 옮겨 향전하였다. 제주도에 삼별초 세력을 진압하는데 금성산신이 항해보호신으로 역할을 하여 제주도 토산리 알당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IV. 인도의 나가신앙으로 본 제주도의 뱀신화·뱀신앙

1. 인도신화에 나타난 Naga의 신격

이 글에서 뱀신화의 자료가운데 한결같이 뱀신의 정체는 바다뱀이다. 바다뱀의 석함이 해안표착하거나 배에 오르는 등 모두가 바다에서 제주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구전자료에 나타난 뱀신의 발원지를 나주 금성산성으로 지목한 연구도 있었다. 나주 금성산성은 신라말 고려

시대에 대중국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지 뱀신화와 뱀신앙의 발상지와는 거리가 멀다. 해양지리적 여건상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의 정점에 위치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북상하는 해상기류에 영향을 받아 뱀신화와 뱀신앙의 중심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 뱀신화와 뱀신앙의 중심권이 토산리 뱀신당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제주도 해안지역 전역에 걸쳐서 뱀신당이 존재한다.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①바다뱀, ②아름다운 처녀신, ③화신의 능력, ④조상신, ⑤마을당신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뱀신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뱀의 정체가 바다뱀이라는 것과 남쪽바다에서 올라온 해양신앙이라는 데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동아시아 뱀신화와 뱀신앙의 발상지는 인도이다. 힌두교에서 비슈누의 호위신으로 등장하는 뱀신은 바다뱀이다. 비슈누(Vishnu)는 브라흐만, 시바와 함께 힌두교의 3대신이다. 나가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뱀 또는 코브라를 의미한다. 인도신화에서 비슈누와 함께 등장하는 나가는 아난따(Ananta)와 바수키(Vasuki)이다. 아난따와 바수키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비슈누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비슈누는 바다를 배경으로 우주적인 완전한 뱀 아난따를 침상으로 드러누워서 편안하게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고, 천년우유바다젓기 신화에 등장하는 줄다리기의 밧줄이 바수키(Vasuki)이다. 바수키는 시바의 목에 감겨있는 뱀이기도 하다. 아난따는 세시(shesha)라고 하는데, 바수키와 함께 나가라자(Nagaraja)에 속한다.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을 이해하려면 인도의 나가 계통의 아난따(Ananta)와 바수키(Vasuki)를 이해해야 한다.

아난따와 바수키는 비슈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호위신이며, 둘 다 바다뱀이다. 인도의 나가를 통해서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을 이해하기 위하여 힌두교의 비슈누와 나가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보고자 한다.

(a)뱀은 신과 악마의 化神으로 세계 각지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인도 대륙에서도 뱀신앙은 존재한다. 그러한 상징이 코브라 즉 나가(naga)이다. 나가는 대개 인간의 상반신과 뱀의 하반신을 갖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5~7개의 머리를 갖는 큰 뱀의 모습을 갖는 것도 있고, 나가는



〈그림 4〉 인도 나가신당의 다양한 모습

용(龍)의 친척으로 묘사된 경우도 있다. 나가는 수중의 낙원에 살며, 강, 호수, 바다의 호화스러운 궁전에 산다. 그들은 머리로 귀중한 보석을 운반한다고 믿고 있다. 영리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뱀의 공주들은 많은 남인도 왕조의 女先祖들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나기니(Nagini)들이다. 나가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문지기(dvara-pala)의 역할이다. 그들은 문지기로서 힌두교와 불교에 자주 등장한다.⁴⁷⁾

(b)힌두 도상학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물에서 태어난 영원한 인간, 사람의 아들, 창조주 비슈누신의 權花로서 나라야나(Narayana)신이다. 그는 무한의 뱀, 아난따의 위에서 쉬는 자(Anantaashayi)이다. 그 인간 모습의 신은, 우주적인 바다에서 뱀의 침대에 누워 명상에 잠긴 잠을 자면서 두 宇宙期(Yuga)사이를 쉬고 있다. 또한 자주 절대신의 창조주로서 의지가 어떻게 자극되어 나라야나가 배꼽에서 연꽃이 되는 첫 현상세계의 형성으로 산출되는가를 묘사해놓았다. 연꽃위에는 비슈누-나라야나(Vishnu-Narayana)의 부탁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네 가지의 머리를 지닌 창조주 브라마흐신이 올라타고 있다.⁴⁸⁾

(c)비슈누의 어깨와 머리는 넓게 펼쳐진 두건을 쓴 것 같은 아홉 마리의 코브라 머리에 둘러쌓여 보호를 받고 있다. 그는 거대한 사리 위에 누어 있다. 그 다두형의 뱀은 神人同形 형상으로 잠자는 그의 동물 쪽 모습이다. 이것은 영원(ananta) 또는 잔존자, 나머지(sesa)라고도 불린

47) 이은구, 『인도의 신화』, 세창미디어, 2003, 99쪽.

48) 안넬리제+페티카일하우어, 『힌두교의 그림언어』, 동문선, 1983, 118쪽.

다. 이것은 대지 상층의 지역과 연옥의 지역 그리고 저들 일체의 존재들이 우주적 심연의 바다에서 형성된 이후에 남은 잔여자를 표상하는 한 개의 형상이다. 세계의 피조된 세계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넓은 펼쳐진 두건 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셋사는 바로 땅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뱀들의 왕이자 조상이다. 어깨와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뱀 두건의 방패는 인도예술에서 뱀수호신의 특징적 형상이다.⁴⁹⁾



〈그림 5〉 인도에서 뱀이 처녀로 화신

(a)(b)(c)는 인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은 힌두신인 비슈누와 관련이 있음을 기술해놓았다.

(a)에서 인도의 뱀신은 신과 악마로 화신하는 영적 존재라고 믿고 있다. 또한 나가는 코브라인데, 나가상은 상반신은 인형상이

고 하반신은 뱀형상으로 彫像되었으며, 이 조상은 남녀 한쌍으로 조성되는데 나가(Naga)와 나기니(Nagini)의 뱀 한쌍의 나가갈(NagaKal)이 만들어진다. 나기니가 남인도 왕조의 여 先祖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뱀의 공주’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 뱀신의 총족 요건으로 처녀신과 조상신인데, 남인도 나가문화권에서 숭배되는 여선조가 곧 제주도의 뱀신의 정체성과 일치하고 있다. 제주도의 뱀신은 곧 뱀의 공주라 할 수 있다.

(a)의 내용으로 (가)의 뱀신화와 뱀신앙을 살펴보면, 첫째, 나가는 화려한 바다의 궁전에 살고 있듯이, 뱀신화의 근원지는 바다이다. 둘째, 뱀

49) 하인리히 침머, 『인도의 신화와 예술』, 이숙중 옮김, 대원사, 1995.

신의 포악한 행위-딸을 병들게 하고, 강간하여 죽이고, 배를 바다에 침몰 등-는 뱀이 악마로 화신하여 해꼬지하는 모습이다. 둘째, 처녀와 딸이 뱀으로 화신하는 것은 '뱀의 공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주는 아름답고 예쁜 모습인데, (가)에 등장하는 딸과 처녀도 젊고 예쁜 아가씨로 묘사되었다. 인도의 뱀의 공주가 제주의 뱀신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뱀신의 해꼬지를 당한 토산리 사람들과 황정승 영감과 조천 선주는 처녀에서 변신한 뱀신을 자기집의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다. 뱀의 조상신 등장은 토템이즘(totemism)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처녀뱀의 조상신은 남인도의 女先祖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뱀의 공주가 그 원형일 수 있다. 제주도 뱀신화에서 뱀신이 처녀로 화신하고 조상신으로 화신하였다가 다시 여자로 화신하여 신산국과 혼인하는 화신의 능력은 비슈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b)는 창조주 비슈누가 우주적인 바다에서 무한 뱀의 침대에 누워 명상에 잠겨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두 宇宙期 사이에 쉬고 있는 모습이다. 두 우주기는 우주가 소멸되고 다시 창조되는 시기 동안을 말한다. 따라서 비슈누(Vishnu)는 바다에서 새로운 세계, 즉 우주창생을 주도하는 세계의 창조자이자 유지자로 인식되어 있다. 그동안 제주도의 창세신화와 천지개벽신화는 제주무속신화에 근거하였으나, 제주무속신화의 원형질은 원시문화가 아니라 힌두문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중심에 비슈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슈누는 바다뱀의 화신이다. 힌두신 가운데 우주적 바다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신은 비슈누가 유일하고, 나가의 몸체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영원한 海神도 비슈누이다. 비슈누가 바다에서 우주의 창조자이듯이, 무한뱀 아난타는 비슈누의 보조적인 해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다뱀이다. 이와 같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적인 무한 뱀은 아난타(Ananta) 또는 세사(Shesha)라고 불린다.

(c)에는 아난타가 코브라뱀의 모습으로 구현되었는데, 비슈누는 두건을 쓴 아홉 마리의 코브라뱀 머리에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는 모습이다. 비슈누가 바다뱀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비슈누가 아난타를 부린

다고 해야 옳을 듯하다. 그런데 인도의 천년우유바다젓기 신화에서 비슈누가 거대한 크기의 코브라를 메루산에 걸어 악마와 신이 천년동안 잡아당기도록 하는 것도 호위신으로 부리는 모습이다. 천년우유바다젓기신화는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사원벽에 장식되어 있는데, 7개의 머리가 달린 코브라뱀, 즉 바수키(Vasuki)를 악마와 신이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 이 바수키는 뱀줄이라 할 수 있으며, 줄다리기는 천년우유바다 젓기에서 나온 것이다.⁵⁰⁾ (a)에서 용이 뱀의 친척이라고 하였듯이, 뱀과 용을 동일시하거나 뱀줄을 용줄이라고 부르기 한다. 이러한 줄다리가 제주도에서 중추절(음 8.15)에 연행된 사실은 비슈누와 뱀신앙이 제주도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제주도 뱀신화·뱀신앙의 근원과 인도의 힌두문화



〈그림 6〉 남인도 쿵갈 지역의 뱀신당

(가)(나)(다)(라)Ⓜ는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의 구전설화 자료이다. 제주도 뱀신화의 핵심은 처녀와 여자조상신((가)라)Ⓜ이며, 뱀신앙의 핵심은 마을의 당신((가)(나)라)이다.

뱀신화와 관련하여 (가)에서는 바닷가에 당도한 용이 아름다운 여신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다)의 황정승의 딸은 구렁이뱀으로 화신하고 다시 조상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에서는 예쁜 처녀는 큰 구렁이뱀으로 화

50) 송화섭, 「동아시아 줄다리기와 한국 줄다리의 유형과 계통 연구」, 『역사민속학』 4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신을 하고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시기로 요청을 받는다. 제주도의 뱀신화에서는 아름다운 젊은 처녀가 큰 구렁이뱀 또는 大龍으로 화신하고⁵¹⁾ 女先祖으로 모셔지는데 그 원형성을 인도에서 찾을 수 있다. (a)의 인도에서 나가는 나가(naga)와 나기니(nagini)가 함께 등장하는데, 半人半蛇像이다. 나기니는 아름다운 공주, 뱀의 공주로서 처녀신으로 등장하고, 남인도에서는 여성조상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주의 뱀신화에 등장하는 예쁜 처녀는 인도에서 신앙되는 '뱀의 공주'가 화현이라 할 수 있으며, (가)에서 배를 전복시키고 좌수의 딸을 임신시키고 관리의 딸을 병들게 하는 뱀신은 남자뱀이 나가(Naga)로 보아야 한다.

뱀신앙과 관련하여 (가)에서는 뱀신이 토산리로 가는 도중 산신의 습격을 받고 용당리 堂神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나주 금성산신이 토산리 알당의 당신으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나)에서는 광양당과 차귀당의 당신으로 뱀신이 신앙되고, (타)에서는 바다에 띄운 석함이 북촌리에 표착하여 북촌리의 당신으로 정착한 연후에 월정리의 신산국과 혼인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에는 바닷가 마을의 당신으로 뱀신이 들어와 정착하고 있으며, 바다의 도래신 성격이 강하고, 토착신인 산신의 습격을 받기도 한다. 인도에서도 마을 단위로 뱀신당이 있거나 고갯마루 길가에도 뱀신당을 조성하여 기도처로 활용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제주도의 뱀신화는 바다의 뱀신화가 원형이다.

바다의 뱀은 독립적으로 성립되는게 아니라 비슈누의 호위신으로 등장한다. 인도에서 바다뱀은 아난파와 비수키가 비슈누와 함께 등장한다. 해양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도에는 비슈누신앙과 나가신앙이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정착해 있다고 보여진다. 비슈누가 제주도의 천지창조 및 창세신화에 깊게 드리워져 있고, 나가는 제주도 뱀신화, 뱀신앙의 원형질이다. 제주도 뱀신의 정체는 바다뱀이라는 점에서 제주

51) 동남아시아 남해문화권에서는 뱀과 용이 이웃사촌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중국은 용문화권이라 한다면, 인도네시아-인도차이나반도는 뱀문화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는 해상기류의 영향으로 뱀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의 중심에 비슈누와 아난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양 지리적 환경에서 제주도의 근원적인 문화적 토양에는 海神으로써 비슈누와 아난따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민간신앙으로 정착했다고 보여진다. 좀더 깊이 들여다 보면 제주도의 선문대할망은 비슈누의 화신이라 할 수 있으며, 뱀신들은 아난따의 화신과 인도 나가들이 마을의 당신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우주기에 바다뱀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비슈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창세신화의 본향은 제주도이다. 왜 제주도에만 창세신화가 전해오느냐고 묻는다면 신화는 신비한 신의 이야기라고 얼버무리며 원시문화라는 시각과 관념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찌 선문대할망이 한라산의 오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신화는 역사다. 본풀이가 당신화의 유래와 역사를 이야기해주듯이, 제주도의 당신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뱀신화는 그러한 사례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신화는 역사적 동기와 배경없이 태동할 수 없다. 역사가 없는 신화는 소설일 뿐이다.⁵²⁾ 제주도의 天地創造, 창세신화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파악

52) 그동안 국문학계에서 제주도의 무속신화에서 본향당 본풀이를 창세신화, 천지왕본풀이를 천지개벽신화로 해석해왔으나, 뱀신화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시대이며, 선문대할망의 생성배경도 18세기말 19세기라는 역사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막연하게 선문대할망, 영등할망 등을 해양계 여신들은 창세신화, 천지창조의 주인공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서 뱀신화와 뱀신앙이 제주무속신화를 정착하였는지, 제주도 당신화와 당신앙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하는게 중요하다. 제주의 무속신화는 힌두신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슈누는 우주의 창조주이자 유지자이다. 비슈누와 브라흐마는 우주 창조의 주인공들이다. (b)에서 우주의 창조주이자 유지자인 비슈누 배꼽에서 솟아난 연꽃에서 비슈누-나라이나(Vishnu-Narayana)의 부탁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창조주 브라흐마가 연꽃에서 태어나고 있다 <그림 7>. 제주도의 천지창조 신화는 비슈누의 천지창조 신화⁵³⁾와 동일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제 제주도의 본향당과 본풀이 연구는 인도의 나가신앙과 비슈누신화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제주도의 무속신화연구는 아끼바식의 민속연구가 확대 재생산되어 온 면이 없지않다. 이제부터라도 번지수를 제대로 짚는 제주신화의 연구를 기대해본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제주도 창세신화의 주인공인 선문대할망은 비슈누관음의 화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⁵⁴⁾ 더 나아가 비슈누관음은 백의관음 보살이며, 남해관음과 같은 신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⁵⁵⁾ 앞에서도 뱀신화는 남해권 신화로서 제주도가 남해문화권에 속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해문화권은 남인도에서 인도차이나반도(베트남) 해안을 경유하여 중국 남해안을 따라 절강성 주산군도에 이르고 다시 사단항로를 따라 북상하면 제주도와 한반도 서남해안까지를 분포권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표류하면 절강성 영파, 오끼나와, 대만, 베트남 호이안까지 떠내려갔다. 『탐라문견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제주도는 남해문화권에 속하여 다양한 해양문화와 해양신앙이 농축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문화를 읽어내야 한다. 제주도의 고인돌, 창조신화, 뱀신화, 뱀신앙, 정낭, 돌하르방, 줄다리기, 계란제물, 석함⁵⁶⁾ 등

53) 김성훈, 『남인도인문기행』, 아이필드, 2013, 36쪽.

54)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 영등할망·선문대할망」, 『탐라문화』 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0.

55) 송화섭, 「중국 저우산군도 푸튀산의 해신과 관음신앙」, 『도서문화』 42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3.

56) 제주도의 해안표착신화에 등장하는 石函은 중국 주산군도에 분포하는 石舟와

이 한결같이 남쪽바다에서 올라온 남방계 문화들이다.

인도신화가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반도로 전파되면서 인도-태평양권의 힌두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남쪽바다의 힌두문화가 북태평양의 해양기류를 타고서 북상하여 제주도까지 북상하게 된 것인데,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이 대표적인 인도 계통의 해양성 문화라 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권에서 남방큰돌고래가 북상하여 제주도 해역에까지 올라오듯이, 1세기경 인도상선들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여 인도차이나해와 중국 남해까지 항해하여 올라오고 있었다.⁵⁷⁾ 이러한 해양환경에서 동아시아 남해문화권의 힌두문화가 제주도까지 북상하여 제주도의 당신화를 태동시키고 뱀신앙을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해상교류의 역사는 탐라국 시기까지 올라간다.⁵⁸⁾ 동남아시아에서 쿠로시오 해류와 계절풍의 바닷길을 따라 남방문화가 탐라국 즉 제주도, 한반도까지 올라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V. 맺음말

이 글은 동아시아 해양신앙의 관점에서 제주의 뱀신화와 뱀신앙을 인도의 힌두문화와 연계시켜 글로컬리티(Glocality)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은 바다뱀이 주인공이다. 뱀신화는 뱀이 처녀로 화신하고, 처녀가 뱀으로 화신하는 배경과 처녀뱀신이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셔지는 배경이 무엇이나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바다뱀은 석함에 실려 해안표착하는 형식으로 제주도에 올라오고,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여 마을수호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57) 양승운 외, 『동남아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176쪽.

58) 이도학, 「백제와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교류」,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7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다. 산신이 뱀신을 공격하는 것은 제주도의 토착신이 바다에서 올라온 도래신에 대한 배척과 경계를 의미한다. 해양지리적 여건상 제주도에는 봄에서 여름철에 걸쳐 남서계절풍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올라오는데, 동남아시아 남해문화권의 해양신앙을 동반하여 파도치듯이 올라온다. 제주도에 향하는 남서계절풍의 해양성 기류는 인도-인도네시아-인도 차이나반도 해역의 힌두문화를 제주도까지 실어 날랐다. 인도 아야타국의 허황옥이 그 바닷길따라 도래했듯이, 구렁이실은 석함이 인도-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여 제주도에 해안에 표착한 것이다. 인도의 힌두신앙이 제주도의 민간신앙과 교섭하면서 제주신화를 낳았다. 아난따를 탄 비슈누의 힌두신화가 제주도에 도래하여 창세신화, 천지창조신화를 낳았고, 나가신앙이 뱀신화와 뱀신앙을 유포시켰다.

제주도 뱀신화와 뱀신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바다뱀, 아름다운 처녀, 화신의 능력, 여자조상신, 당신앙 모두 인도신화와 힌두신앙에 나타난다. 제주도의 뱀신화와 뱀신앙은 인도 비슈누신화와 나가신앙이 그 뿌리라 할 수 있다. 인도의 나가신앙이 제주도의 뱀신앙으로 정착하였으며, 비슈누신화가 제주도의 천지창조신화와 창세신화의 주인공인 선문대할망을 낳았다. 우주의 창조자 비슈누의 힌두신화에서 비슈누와 나가(Naga: Ananta, Vasuki)는 분리될 수 없는 일체성을 보여준다. 비슈누는 창조창세신화의 주인공이요, 나가는 비슈누의 보조적인 해신이란 점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이다. 비슈누가 바다에서 우주창조신 이듯이, 나가도 바다뱀이다. 바다뱀은 그 자체가 신화적 존재이다.

제주도의 巫俗은 밀교적 관점에서 접근, 해석해야 한다. 密敎는 힌두신앙과 민간신앙과 무속신앙이 결합한 매우 포용성과 수용성이 큰 종교다. 이제라도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류의 바람길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해양문화환경에서 제주문화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석하여야 단힌 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 제주도의 뱀신을 蛇鬼文化圈으로 보려는 아끼바민속학은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신화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해결될 분야가 아니다. 신화에서 역사를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뱀신은 蛇鬼가 아닌 蛇神으로 보아야 한다. 제

주의 뱀신은 퇴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제주도만의 독특한 뱀신화와 뱀신앙이 아니라 열린 시각으로 이역만리의 먼 남쪽 바다에서 석함타고 도래한 뱀손님들을 품어보자.

참고문헌

1. 사료

『新增東國輿地勝覽』

2.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편, 2011.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서울, 2012.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여행』, 고래실, 2006.

김성훈, 『남인도인문기행』, 아이필드, 2013.

안넬리제+페티카일하우어, 『힌두교의 그림언어』, 동문선, 1983.

양승윤 외, 『동남아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여연·문무병, 『신화와 함께하는 제주 당올래』, 알렙, 2017.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이은구, 『인도의 신화』, 세창미디어, 2003.

정운경, 『탐라문견록, 바다밖의 넓은세상』, 정민 옮김, 휴머니스트, 2008.

진선희, 『제주 바당 표류의 기억』, 민속원, 2017.

秦聖麒 『南國의 神話』, 아림출판사, 濟州民俗文化叢書 제1권, 1965.

_____, 『濟州島巫俗論考-南國의 巫俗』, 濟州民俗研究所, 1993.

_____, 『제주도무속연구』, 민속원, 2008.

최부, 『표해록』,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2004.

하인리히 칩머, 『인도의 신화와 예술』, 이숙종 옮김, 대원사, 1995.

Ariel Golan,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정석배 역, 푸른역사, 2004.

3. 연구논문

김병모, 「한국 거석문화의 원류에 관한 연구(1)」, 『한국고고학보』 10·11, 한국고고학연구회, 1981.

- 김헌선, 「사신숭배와 사신퇴치의 신화와 의례: 제주도의 사례를 구실삼아」, 『제주도 곳과 신화 학술대회자료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한국무속학회, 2018.10.26.
- 文武秉,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송화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고인돌」, 『인문콘텐츠』 4호, 인문콘텐츠학회, 2004.
- 송화섭, 「한반도 서남해안 석주설화의 역사적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25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 송화섭, 「중국 저우산군도 푸튀산의 해신과 관음신앙」, 『도서문화』 42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3.
- 송화섭, 「동아시아 줄다리기와 한국 줄다리기의 유형과 계통 연구」, 『역사민속학』 4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 『탐라문화』 제37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0.8.
- 이도학, 「백제와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교류」,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7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 우장문, 「인도네시아 슴바섬의 고인돌」, 『백산학보』 87호, 백산학회, 2010.
- 정연학, 「한국의 해신과 배서낭」, 『한일해양민속지-한일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 바다』, 국립민속박물관, 2018.
- 秋葉 隆, 「濟州島의 蛇鬼」, 『朝鮮民俗誌』 명저출판, 1954.
- 玄容駿, 「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堂神話考(二)-」, 『國文學報』 2,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1964.
- 玄容駿 玄丞桓,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탐라문화』 1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Serpent Myths of Jeju Island and the Phylogenetics of Serpent Worship

Song, Hwa-seob^{*}

Jeju is an island of myths. Different villages have different myths about the deities and shrines dedicated to them. One of those “*dangsinhwa*(당신화, shrine myth)” is the serpent myth. Serpent shrines can be found across the island. The serpents featured in Jeju’s serpent myths and serpent worship are sea serpents. Here, a sea serpent refers to a mythical serpent that originates from the sea. Jeju’s sea serpents can transform into young maidens and vice versa. Sea serpents are worshipped as “*baeseonang*(배서낭, guardian spirit for ships),” protectors of navigators, or ancestral deities. Coastal villages on the island have shrines dedicated to serpent deities, with the folk belief that serpent deities follow maidens around. In many of the serpent myths, serpents arrive at the island’s seashores in stone caskets. In other words, Jeju’s serpent deities originate from overseas. From a marine geographical perspective, Jeju Island is an open space that adopted the marine cultures of the North Pacific region. Jeju’s serpent myths and serpent worship came from the South Sea in Southeast Asia, and Jeju forms a part of the South Sea Cultural Sphere. The Southeast Asian China Sea includes the Indochinese Peninsula, the southern coast of China, and the sea around Jeju Island.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Indian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erpent myths and serpent worship traveled north to Jeju along the sea routes of the South Sea. India's sea serpents are Ananta and Vasuki. Ananta is a celestial serpent that serves Vishnu, and Vasuki is the protector of the Ocean of Milk. The myths and belief with regard to these two Hindi deities from the South Sea Cultural Sphere have penetrated deep into the culture of Jeju Island. Ananta arrived at Jeju Island and found its place in the serpent myths, serpent worship, and serpent shrines of the island. However, not all areas with high snake population worship serpent deities.

Key-words: Jeju Island, serpent deity, serpent myth, serpent worship, South Sea, Ananta

논문투고일: 2019. 01. 02.

심사완료일: 2019. 01. 29.

게재확정일: 2019. 02. 01.